“대학생 새내기 불자 여기 모두 모여라”

3월 6일, 서울 성균관대 ‘성불회’ 신입 회원 모집 현장

목탁소리에 이끌려 온 새내기들
선배 안내 듣고 템플스테이 관심
대불련, 3월 한 달 20여 대학서
홍보 나서…각종 물품 적극 지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공부와 취업 고민으로 쌓인 스트레스, 성불회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로 날려버리세요.”

따듯한 봄 햇살이 내려앉은 서울 성균관대 잔디밭.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새내기들 사이로 불교 동아리를 알리는 선배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학기를 맞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유정현, 이하 대불련)가 젊음의 활기가 넘치고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새내기 모집에 한창이다. 서울 성균관대 불교학생회 성불회(회장 고남욱)도 3월 6~7일 이틀에 걸쳐 교내에서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새내기 불자 만들기에 대학생 불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대거 등장했다. 동자승 탈을 쓰고 동아리 홍보물을 전달하는가 하면 홍보부스에서는 연꽃 만들기, 목탁 체험 활동이 펼쳐졌다.

성불회 선배들은 생경한 목탁소리에 이끌려 부스를 찾은 새내기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부터 템플스테이, 봉사활동, 정기법회, 전국 연합활동 등 청년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홍보부스를 찾은 신입생들은 안내를 꼼꼼히 듣고 특히 템플스테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조흔이 학생(경영 23)은 “평소 고요한 산사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도 알고 힐링도 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면서 “성불회를 통해 명상과 사찰음식, 부처님 가르침도 알아가고 싶다”고 큰 관심을 표현했다.

이날 홍보부스에는 다른 동아리처럼 요란한 퍼포먼스는 없었지만 입회 희망을 밝힌 학생이 줄을 이었다. 대면 모집이 3년 만에 이뤄진 상황에서 매우 성공적이라는 게 불교학생회의 설명이다.

고남욱 성불회장은 “학생들이 마음편히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동아리로 운영하고 있다”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열리는 정기법회뿐 아니라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템플스테이, 명상 등 다채로운 활동을 꾸준히 계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불회 회원들이 신입생들에게 목탁시범을 보이고 있다.

이날 고남욱 회장은 성불회의 강점으로 OB선배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꼽았다. 고 회장은 “성불회는 사회에서 탄탄하게 자리잡은 선배들의 지원이 있는 동아리”면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렵다 보니 전국적으로 불교 동아리가 침체됐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과 선후배 활동 등으로 적극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보부스에는 올해부터 성불회를 지도하게된 지도법사 청빈 스님도 동참, 신입생들을 맞아 눈길을 끌었다. 청빈 스님은 “고민 걱정이 많은 요즘 대학생들에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다양한 명상법과 마음공부 등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것”이라면서 “많은 대학생 법우들이 불교와 함께하는 대학생활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련은 3월 한 달간 동국대,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전남대, 대전대, 부산대 등 전국 20여개 학교에서 불교 동아리 홍보에 나선다. 스카이댄스와 팝콘 기계, 동자승 인형탈 등 다양한 포교 굿즈를 적극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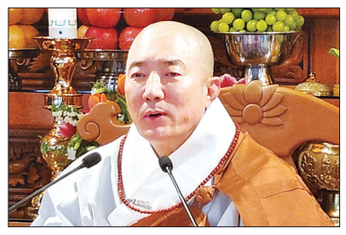
“학내 소통 최선…자기 역할 다해야”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3월 3일 개강법회서 첫 법문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웅대하고 거룩하고 존엄한 가치로 맡겨진 소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 자신으로 인해서 동국의 만유만사가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갑시다.”

학교법인 동국대 제4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돈관 스님의 일성이다. 돈관 스님은 3월 3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봉행된 2023학년도 1학기 개강법회에서 법사로 나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사장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이기도 했던 이날 법회에서 돈관 스님은 ‘소통’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특히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이 건학위원회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강조한 말씀을 정리하면 〈화엄경〉 법성게의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하며 “‘하나 가운데 모두가 있고 모두가 하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고문 자승 스님의 말씀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학내 구성원 개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건학위원장



소임을 통해 제가 동국 발전을 위해 세운 화두는 ‘소통’”이라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필요한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소통하는 이사장이 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돈관 스님은 동국대 발전을 위해 학내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지 않으면 종립학교 교육도 퇴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동국호가 출발하는 만큼 모든 구성원이 맡은 바 역할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3월 7일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에서 열린 개강법회에서도 돈관 스님은 동국 발전을 위한 학내 소통을 제언했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포교와 교육에 있다”고 강조한 스님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신뢰하며 진정한 동국인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사노위, 성평등 사회 발원

3월 6일, 서울시청광장 시민들에 보라색 리본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3·8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열린 한국여성대회에 동참, 성평등 사회를 염원했다.

사노위는 3월 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 성평등 가치를 알렸다.〈사진〉 이번 동참은 행사 주최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사노위는 부스를 열고 시민들에게 성평등 뜻이 담긴 보라색 리본을 나눴다. 또 여성해방을 염원하는 스님의 법고 시연과 범종, 목탁치기 등의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사노위는 또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임은호 기자

‘의료위기’ 스리랑카에 필수의료기기 지원

마하위하라 사원·(사)인간의대지 5천만 원 상당 수액세트 2500개



마하위하라 사원과 인간의대지는 3월 8일 서울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 5000만원 상당 의료기기를 전달했다.

국가부도 사태 이후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스리랑카에 한국 불교계가 의료기기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실시한 의약품 지원에 이은 두 번째로, 한국 불자들의 자비온정이 함께한 결실이라 훈훈함을 더한다.

마하위하라 사원(주지 담마끼띠)과 인간의대지(이사장 곽병태)는 3월 8일 서울 주한스리랑카대사관에서 ‘생명을 위한 필수의료기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의료기기는 총 5000만 원 상당 규모로 스리랑카 국적기를 통해 전달된다.

이번 의료기기 지원은 마하위하라 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스리랑카 국민을 위한 필수의약품 지원 캠페인’에 따른 2차 결실이다.

이번에 전달될 후원품은 의료기기인 수액세트 2만500여 개다.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는 차광 수액 세트에 봉투까지 포함, 비타민 및 항암제 등 일부 약물들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인만큼 대사관 측은 본국 복지부와 국적항공회사 등 관계부처와의 행정적 절차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기들이 즉각 본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비트리 인드라차파 파나보크 주한 스리랑카 대사는 “스리랑카를 위해 지속적인 의료지원에 나서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잊지 않고 올해도 아주 귀한 선물을 기부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간의대지 곽병태 이사장은 “지원된 물품들이 힘든 분들에게 골고루 쓰여지길 바란다”면서 “인간의대지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수범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 이사는 이날 식약처 허가까지 취득한 차광 수액세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의약품 후원을 주도한 사원 담마끼띠 스님은 의료지원에 이어 교육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도 밝혔다. 학용품 부족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학용품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나 혼자 한다는 착각서 벗어났어요”

한마음과학원, 제7기 한마음공생실천 심화과정 회향

현대적 참선프로그램인 제7기 한마음공생실천 심화과정이 회향됐다.

한마음과학원은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6주간 제7기 한마음공생실천 심화과정을 진행했다”고 3월 3일 밝혔다.〈사진〉

한마음과학원이 운영하는 한마음공생실천 심화과정은 3년 전부터 자체 제작한 수업 교재를 활용해 법문 사경과 ‘예화로 보는 마음공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제7기부터는 팀원 간 문제를 공유하고 마음을 내는 ‘공생관(共生觀)’을 통해 자신과 타인이 한마음으로 연결돼 있고, 함께 공생하는 생명임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져 참가자의 호응을 높였다.

교육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은 “매주 과정을 들으며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고, 매일 ‘수행일지 관노트’로 나의 습과 의식의 흐름을 보고 바꾸어 가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면서 “‘둘이 아니고, 나 혼자 한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됐다. 도반들을 통해



서 내 안에 잠재돼 있는 생각과 감정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도반들이 나를 이끌었고, 앞서 공생실천과정에서 스님과의 질의응답은 마음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현대적 참선 교육 프로그램인 한마음공생실천과정 심화과정은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을 이수해야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제38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오후 1시 30분 매주 토요일 9주간 진행된다. 장소는 한마음과학원 3층 강의실이다. 수강료는 20만원이며,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031)470-3200/3198(월요일 휴무)

신성민 기자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법화경전문강설”을 검색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